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 “저는 탕자와 같습니다”

“1838년 말, 신뢰 받는 교회 회원이었던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선지자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고, 이로써 그들은 결국 미주리에서 수감되었다. 1840년 6월, 펠프스 형제는 조셉 스미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96쪽, 번역 수정)

다음은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가 선지자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조셉 형제님[,]

... 저는 탕자와 같습니다. ... 저는 지극히 낮아졌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

제 처지는 저도 알고, 형제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만일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 저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들보는 제 눈 속에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 저는 여러분의 우정이 필요합니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7: September 1839–January 1841*, ed. Matthew C. Godfrey and others [2018], 304–5)

- 윌리엄의 거짓 증언이 성도들에게 것처럼 많은 고난을 초래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용서와 우정을 구하는 윌리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에게 보낸 답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시기 힘든 쓴 잔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던 상황에서 형제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 잔은 참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고통의 쓴 잔은 비워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

형제님의 고백이 참되고 형제님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형제님을 친구이자 동료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며,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와 같은 기쁨이 제 마음에 넘칩니다.

지난 일요일, 형제님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으며, ... 우리는 만장일치로 더블유 더블유 펠프스를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소서,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으며,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98쪽, 번역 수정)

- 조셉 스미스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그의 성품과 관련하여 어떤 면을 엿볼 수 있는가?
- 윌리엄은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자신을 다시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느꼈겠는가?